

The cover art features a central character, a young man with a determined expression, wearing ornate, light-colored armor with gold and red accents. He is holding a large, curved sword. The background shows a stylized, ancient-looking building with a large, glowing yellow crystal or gem on the left.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light blues, greys, and golds, with a warm, golden light source on the left.

WORLD
WARCRAFT®
THE WAR WITHIN™

믿음과 불꽃

L. L. MCKINNEY

페어린 로서는 위대한 카이론의 집무실 밖에 놓인 세 가죽 의자 중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페어린은 그 의자가 익숙했다. 특히 오른쪽 팔걸이에 패인 작은 흠집까지도. 수많은 점등원과 점등원을 꿈꾸는 이들이 긴장한 손끝으로 긁으며 남긴 흔적이었다. 페어린도 예외는 아니었다.

벨레다르의 빛이 복도 끝 높은 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비스듬히 들어오는 금빛 줄기는 회랑을 산산이 조각냈다. 이 풍경은 마땅히 고요하고, 누구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피난처처럼 느껴져야 했다. 그렇지만 페어린은 한 시간 내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불안이 몸 전체로 스멀스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팔이, 끝에 가서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툭툭 두드려대는 부질없는 행각이 이어졌다.

페어린은 눈을 감고 소용돌이치는 생각에 집중했다. 안두인 린의 말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함께 가지죠.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을 거고.....'* 안두인의 초대는 물론,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해서 페어린의 귓전을 맴돌았다. 안두인의 이야기는 페어린의 심상에 오래된 세계를 새롭게 그려냈다. 외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영웅과 전설의 이야기, 다른 누구도 아닌 페어린의 혈통에 깃든 신화. 로서라는 이름은 페어린이 *아리아의*

승천호에 몰래 몸을 실은 바로 그날에 내려놓은 유산이었다. 페어린은 먼지 낀 역사서와 낡은 양피지 사이에 갇혀 지내는 운명을 피했다고 믿었다. 수많은 전설이 페어린의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 모든 조각은 하나의 불타는 진실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과거를 돌보는 삶은 페어린이 바라던 인생이 아니었다.

그런데 안두인이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서'라는 이름이 한 백성을 대표하는 용사의 이름이었다고..... 과거가 페어린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낡은 고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시련에 부딪혀 쟁취한 승리를 통해서 말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름에 이끌려 길을 떠난 영웅들의 이야기.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자신보다 더 큰 대의를 좇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페어린의 심장 깊은 곳을 울렸다. 마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던 태동처럼. 그 운명의 날 페어린을 부두로 이끌었던 어떤 울림을 닮아 있었다. 그것은 의무였고, 책무였다. 이것이 페어린을 다른 가족과 구분 짓는 차이점이었다. 페어린은 그런 부름을 깊은 내면에서 느꼈지만, 가족은 철없는 아이의 변덕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그 부름이 다시 한 번 들려오고 있었다.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페어린은 빠른 발걸음으로 상층 전당을 걸었다. 건물은 축복받은 듯한 적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동료 점등원들은 일과를 막 시작하고 있으리라. 그제 페어린이 이 이른 시간을 고른 이유이기도 했다. 잠깐이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니까. 페어린은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그 상대의 실망이나 슬픔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자신을 설득하려 들지 않기를 바랐다. 무슨 말인들 통할 리 없겠지만. 페어린을 설득할 가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던 이들은..... 이제 없다.

페어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이 솟구쳤다. 하지만 페어린은 감정을 꼭 눌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더욱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진정하자." 페어린이 정적 속에서 웅얼거렸다.

오랫동안 신성한 불꽃이 자신을 신성한 협곡으로 이끌었다고 믿어 왔다. 불꽃의 축복을 받은 전사로서, 이곳에 *머물러야 할*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더 큰 갈망을 품고 있었다.

고요 속에서 다른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자, 페어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펼쳐지는 기억을 내버려두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해, 그 계획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번뇌하고 싶지 않았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페어린을 감쌌다. 처음에는 얼마나 썰렁했는지. 원정대

전체를 통틀어 아이는 페어린 하나였다. 커다란 부싯깃 상자 안에 들어 있던, 바람 앞의 등잔불 같은 존재. 그때의 건물은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혼자만의 공간이 너무 넓어서 숨이 막힐 줄 누가 알았을까?

그 시절을 견디게 해 준 유일한 존재는 시그프레이드 시즈피르였다. 그는 메렐다르 보육원 관리인으로 발탁된 인물이었다. 그때만 해도 노인은 지금처럼 지치고 닳아 보이지 않았다. **‘열심히 살아왔단 증거지.’** 본인은 종종 그렇게 말했다. 사실 시그프레이드는 말을 참 많이 했다. 대부분은 ‘뛰지 마라’, ‘그거 미끄럼틀 아니다’,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같은 잔소리였지만, 페어린의 공식적인 후견인은 바엘리시아 스틸스트라이크 장군이었지만, 보육원에서 생활은 시그프레이드가 알뜰하게 챙겼다. 스틸스트라이크의 규율을 외우고 실천하게 만든 것도 시그프레이드였지만, 그렇다고 페어린이 자주 여기는 걸 막을 순 없었다.

밤이 되면 페어린을 침대에 눕히고, 찬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시그프레이드였다. 아라시 제국을 위대하게 만든 전설의 용사들. 그렇게 쌓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훗날 페어린이라는 사람의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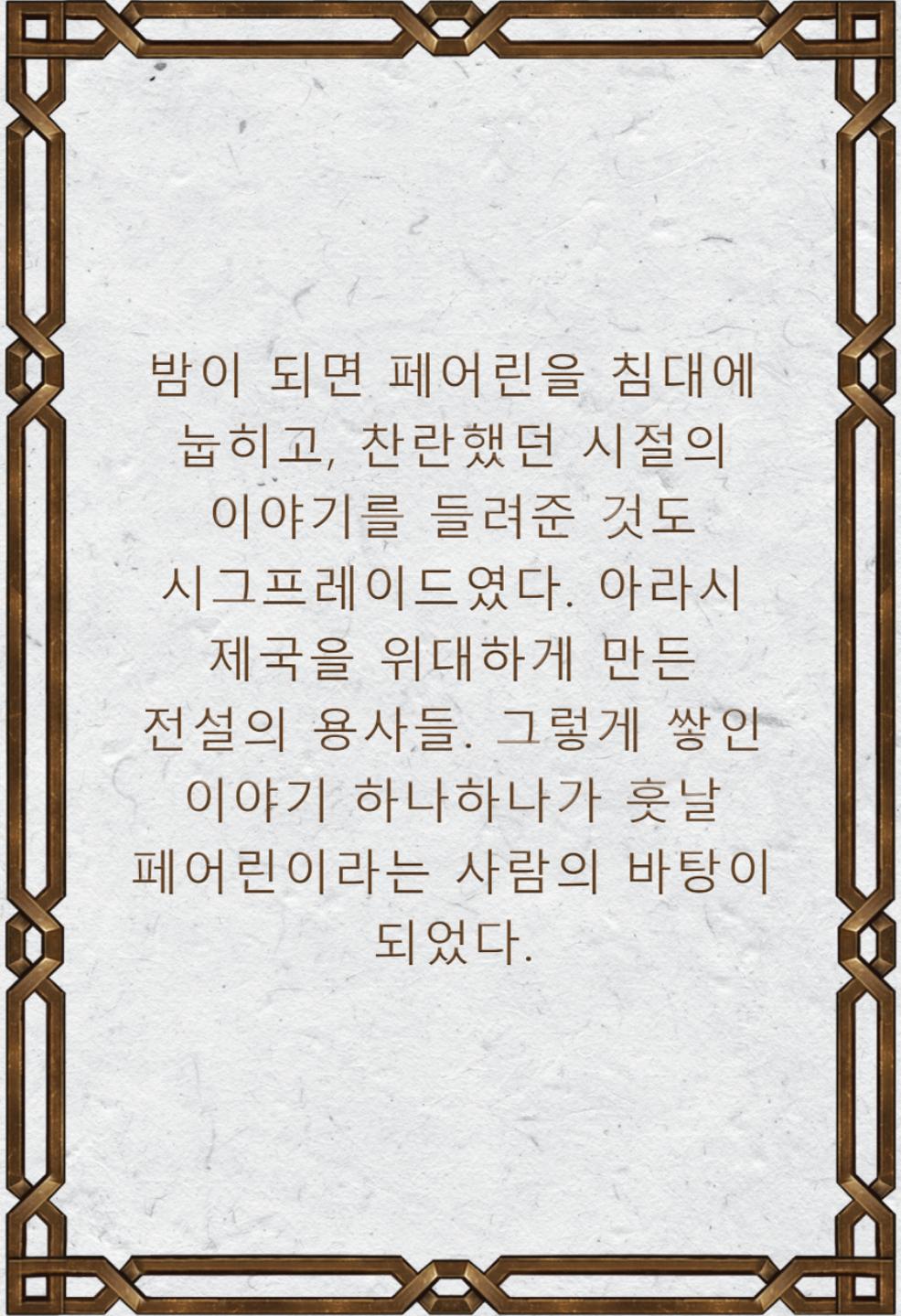
“전투 이야기해 주세요!” 그날 밤 페어린은 조르고 또 졸랐다. 목욕을 마치고 선선한 밤에 딱 어울리는 면 잠옷으로 갈아입은 참이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구릿빛 바람이 열린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커튼을 흔들고, 낮 동안 페어린이 끄적거린 낙서로 가득한 양피지를 살짝 들추었다. 페어린이 스틸스트라이크 장군의 얼굴 대신 스라소니의 머리를 그려 넣었던 사실만 놓고 봐도, 그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었다.

“허허.” 시그프레이드는 웃으며 페어린이 내팽개친 베개를 정리했다. 짙은 갈색 얼굴에 장난기 어린 빛깔이 어렸다. “이야기는 이불에 **들어가서** 들어야 하는 법이란다. 안 그러면 꿈꾸는 자들이 네 떠도는 생각을 잡지 못할 테니 말이야.”

페어린은 씩씩거리며 침대에 털썩 누웠다. 이불에 발을 쑤셔 넣긴 했지만, 당장 눕지는 않았다. 페어린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감싼 천을 매만지며 시그프레이드를 가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꿈꾸는 자는 현실에 없잖아요.”**

“그럼 리가.” 시그프레이드가 발끈한 듯 콧방귀를 끼었다. “그럼 자는 동안 꿈을 가져다주는 건 누구겠니? 설마 요정일까.” 시그프레이드는 폭신해진 베개를 다시 두드리곤, 협탁에 놓인 두툼한 책에 손을 얹었다.

시그프레이드의 손끝이 책의 표지를 스칠 때 페어린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시그프레이드는 기다리듯 표지를 톡톡 두드렸다. 결국 페어린은 킁킁



밤이 되면 페어린을 침대에
눅히고, 찬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시그프레이드였다. 아라시
제국을 위대하게 만든
전설의 용사들. 그렇게 쌓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훗날
페어린이라는 사람의 바탕이
되었다.

웃으며 이불을 책 덮고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 시그프레이드가 윈크하며 책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무게에 손이 살짝 내려앉자 페어린은 절로 미소가 번졌다.

“자, 그럼.” 노인은 책을 무릎 위에 펼치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덜 자극적인 이야기가 어떻겠니?”

“에이.....” 페어린은 일부러 귀여운 투정을 부렸다. “전투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단 말이에요!”

“오호?”

“진짜예요! 강하면 싸워야죠! 다른 건 *지루해요*.”

시그프레이드는 딱히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듯한 특유의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오늘 밤 이야기의 소재는 정해졌구나.” 노인은 책을 펼치고는 책장 가장자리를 감싼 덩굴을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그러자 잉크에서 부드러운 금빛이 흘러나오더니, 책 전체를 감싸며 책장을 차례차례 넘겼다. 이윽고 빛은 글에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우와!” 페어린이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책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긴 처음이었다. “마법도 쓸 줄 아세요?”

“아쉽게도 아니란다.” 시그프레이드는 키득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소곤거렸다. “하지만 이 책은 쓸 줄 알지.”

페어린은 더 깊숙이 몸을 기대며,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는 말이다*.” 시그프레이드는 펼쳐진 책장을 토닥이며 말을 꺼냈다. “무수한 싸움과 격돌 속에 묻혀 숨겨져 있던 특별한 이야기란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비밀을 지켜온 비밀지기들이 맹세로 봉인해 두었고, 그 덕에 완전히 잊힐 뻔했지.”

여덟 살의 페어린은 시그프레이드의 엉뚱한 말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쏟았다. 이야기란 그런 마법을 품고 있었으니까.

시그프레이드는 연극 배우처럼 헛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최초의 불꽃 크레이세이의 노래: 잊힌 아라소르 여왕 이야기*. 전설에 따르면 크레이세이는 왕의 딸이었고, 소라딘의 후예였다고 하더구나.”

“네 조상님이라네.” 시그프레이드는 페어린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페어린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들어본 이가 많지 않거든.” 그녀의 보호자는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이건 잊힌

여왕에 대한 수많은 신화 가운데 하나란다.” 시그프레이드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크레이세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활발하고 불같은 기질을 지닌 아이였어. 충명하고 영리했지만, 학문이나 집안일보다는 놀이나 야생 탐험에 더 열을 올렸지.”

“누구랑 꼭 닮았구먼.” 시그프레이드는 넌지시 핀잔을 던졌다.

“크레이세이는 쿠엘탈라스 출신 귀부인에게서 태어난 장녀였어. 자연을 각별히 사랑했고, 틈만 나면 숲과 강을 따라 걸으며 온갖 생명체를 친구로 만들었지. 귀족의 신분이었지만 평민과 어울리기를 즐겼고, 존경을 받으면서도 특별 대우 같은 건 단호히 거부했단다. 무예에 소질이 있었고, 비전 마법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

“크레이세이가 성인이 될 무렵, 나라에 끔찍한 저주가 내렸어. 그 저주는 땅는 것마다 오염시켜 흉포한 야수로 뒤틀어버렸지. 저주에 걸린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고향과 마을을 파괴했어. 왕국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단다.”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뒤틀린 괴물로 이뤄진 군대가 수 세대에 걸쳐 국토를 지켜준 소라딘의 성벽을 돌파했어. 참상을 두 눈으로 목도한 크레이세이는 자신의 힘과 기술을 왕국을 지키는 데 바치기로 맹세했지. 크레이세이는 이 저주 마법의 근원을 추적해 뿌리 뽑기로 결심했어.”

“그 이후로 몇 달간 크레이세이는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매번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사람들이 지독한 상실을 겪지 않게 도왔어. 그러던 어느 날, 공주와 부상당한 동료들을 포위한 괴물들이 다가오던 순간, 크레이세이는 여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불꽃과 빛의 격류를 뿜어냈어. 연기와 먼지가 걷히자, 불꽃을 검과 방패처럼 든 공주의 모습이 드러났지. 빛나는 갑옷과 타오르는 무기를 들고 선 크레이세이는 태양 그 자체의 힘을 손에 넣은 것 같았단다.”

페어린은 찬란하게 빛나는 전사를, 자신의 선조를 상상했다. 자신과 똑같이 어두운 피부를 지녔으며, 힘을 뿜어내는 모습을.

“공주는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시간은 여전히 그녀의 편이 아니었어. 저주는 계속 퍼져나갔고, 전쟁은 끔찍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끔찍한 저주를 강화해, 더 빨리 퍼져나가게 했거든. 방어선은 하나둘 무너졌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전선과 인접한 천막에서 잠자던 크레이세이 공주에게 빛의 존재가 나타났단다. 그 존재는 자연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장소의 환영을

보여주었어. 세상의 심장과 하늘의 눈이 맞닿는 곳에 있는 사원을 말이야. 하지만 그곳을 찾을 수 있는 자는 크레이세이뿐이었어. 진실한 영혼을 지닌 자만이 그 힘을 질 수 있었거든.”

“그래서 크레이세이는 홀로 길을 떠났어. 대륙 전역을 샅샅이 뒤지며 적과 악귀를 쓰러뜨렸지. 그 와중에도 백성들이 단 하루라도 더 살아남기를 기도했지. 마침내 크레이세이는 숨겨진 사원을 찾아냈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친 다리를 이끌며 계단을 올랐어. 어떤 수호자를 만나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각오를 다졌지. 그런데 중앙의 방에서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꿈에서 본 그 빛의 존재였어. 빛의 존재는 별빛이 흐르는 로브를 걸친 여인이었어. 소용돌이치는 빛과 불꽃의 웅덩이 앞에 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여인이 고개를 들자, 그 얼굴이 끊임없이 변했어. 엘프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트롤로, 다시 엘프로..... 움직일 때마다 모습이 달라졌지.”

“여인은 자신을 ‘후예’라고 소개하며, 크레이세이 안에 깃든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어. 타인을 위해 싸우는 의지를 말이야. 다가올 시대에 세상은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 크레이세이의 왕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렇기에 그대를 이 성소로 부른 것이야.’ 후예가 힘차게 말했어. ‘이 악몽을 무찌를 힘을 그대에게 주기 위해서.’”

“안도감이 밀려든 공주는 쓰러질 뻔했어. 자신은 이 힘을 찾아 먼 길을 왔으며, 마침내 여정의 끝에 다다른 것 같다고 고백했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후예의 얼굴엔 실망이 스쳤어. 크레이세이가 원한 게 힘 하나뿐이라면, 그녀도 그녀의 백성도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악에 패배할 운명이었던 거지.”

“하지만 공주는 여인의 생각을 바로잡았어. ‘힘을 노리고 온 게 아닙니다.’ 크레이세이 공주가 단호하게 말했지. ‘목적은 이루기 위해서죠. 이 사악함으로부터 왕국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남은 생을 모든 땅을 지키는 데 바치겠습니다.’”

“대답에 만족한 여인은 크레이세이에게 불타오르는 사원의 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했어. 그렇게 하자 공주의 과거와 정수는 불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졌지. 타오르는 눈과 불길 같은 머리칼을 지닌 공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 그 손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씨, ‘최초의 불꽃’이 들려 있었어.”

“당시엔 성기사가 없었던단다.” 시그프레이드가 설명을 덧붙였다. “물론 마법사는 많았지. 불씨를 갖고 돌아온 크레이세이는 성스러운 빛과 불꽃의 힘을

“대답에 만족한 여인은 크레이세이에게 불타오르는 사원의 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했어. 그렇게 하자 공주의 과거와 정수는 불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졌지. 타오르는 눈과 불길 같은 머리칼을 지닌 공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 그 손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씨, ‘최초의 불꽃’이 들려 있었어.”

모두 다루며 나라를 어지럽히던 악을 몰아냈어. 심지어 여왕은 저주에 물든 이들을 정화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기도 했단다.”

“여왕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오랜 세월 활약한 끝에, 크레이세이는 마침내 왕위를 자식들에게 넘겼어. 자식들 역시 어머니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씨의 일부를 물려받았지. 크레이세이의 자손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자 했단다. 이후, 크레이세이는 남은 힘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저주의 근원을 추적하려 했어. 자신의 왕국, 나아가 세계 전체를 정화하여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였지.”

“시간이 흐르면서 선대 여왕의 행적을 점차 끊기게 되었고, 결국 누구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단다. 그렇게 크레이세이는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란다.” 시그프레이드는 책을 덮으며 속삭였다. 잠시 책이 은은히 빛나다 다시 흐릿해졌다.

그날 밤, 페어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동이 트기 전에 몰래 이불 밖으로 나와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려 했지만, 그 책장을 다시 마주하진 못했다.

그래도 크레이세이 여왕과 그 전설은 페어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어쩌면 페어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동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느끼는 본능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믿음은 페어린을 세상으로, 그 너머로 이끌고 있었다.



“페어린?”

회상에 잠겨 있던 페어린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동료 점성원, 메라디스 라케의 낮익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메라디스.” 페어린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 계속 있었어?” 메라디스가 다가오며 물었다.

“얼마 안 됐어. 위대한 카이론 님과 논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페어린은 조금 전까지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듯 태연히 벽에 기대섰다.

“지금 막 나가셨는데.” 메라디스는 무심코 어깨 너머로 돌아보려다 말았다. ”

안두인과 할 얘기가 있다고 가셨거든. 곧 떠난다고 하더라. 다른 분들도 함께.....”

“알고 있어.” 페어린이 말을 끊었다.

메라디스는 멈칫하며 코끝을 찡그렸다. 페어린에게는 익숙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 있어? 좀..... 불안해 보여.”

페어린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고, 자각했을 땐 늦은 뒤였다. “그래 보여?”

메라디스는 잔잔하게 웃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응. 아니, 불안하다기보단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대?*”

그 말은 일종의 출구였다. 그대로 인정하면 메라디스는 더 이상 캐묻지 않겠다는 암시였다. 페어린이 먼저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함께 훈련하고 성장하면서 두 여인은 예상치 못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던 사이에서 진정한 전우로 거듭난 것이다. 페어린이 메라디스를 대하며 느끼는 유일한 불편함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요즘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 페어린은 애써 말을 돌렸다.

“맞아, 누구든 그렇지. 근데 *넌* 아니잖아.” 메라디스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단정하게 묶은 백금발 때문일까? 메라디스의 표정이 더없이 파리해 보였다. “네 믿음은 흔들리지 않잖아.”

“그건 여전하지.” 페어린은 의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가운데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전령과 마주쳤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메라디스의 입가에 서서히 번지던 의기양양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말해. 무슨 일인데?”

페어린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표정을 숨겼다. 메라디스가 진심을 읽지 못하도록. “정말 괜찮아. 걱정할 일은 아니야.”

메라디스는 믿어도 되는지를 따져 보는 듯한 눈빛으로 페어린을 훑었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했는지 어깨를 떨구며, 살짝 상처받은 듯 낮게 말했다. “네 말이 그렇다면야..... 그럼 카이론 님 뵙고 나면, 여관으로 올래? 우리 기다릴게.”

“우리?”

“레갈드가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 날리나는 최근 일도 있고 해서 한잔 쏘겠다고 했고. 너도 오면 좋지.”

“시간이 될까.....” 페어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메라디스가 팔짱을 꼈다. “설마..... 우리를 떠날 생각은 아니지?”

의자의 흠집을 응시하던 페어린이 화들짝 고개를 치들었다. “뭐..... 뭐라고?”

“아이고, 머리아.” 메라디스는 코를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때랑 똑같아. 그때 그 녀석을 뒤쫓아 갈 때.....”

그 말은 페어린의 예상 밖이었다. 페어린은 메라디스를 바라보는 것 외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곤란했다.

메라디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성을 잃거나 방해받기 전에 끝내겠다는 듯이. “네 믿음과 열정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 할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널 이끄는 힘은 네게 *자격이 있기에* 이끄는 거라는 거야. 너는 처음으로 자격이 있었어. 우리가 처음 어둠에 휩싸였을 때부터. 나는 미지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너는 믿어. 몇 년 내내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내던 나에게 신성한 불꽃을 밝혀 준 건 너였으니까. 네가 가야 한다고 느끼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옳다고 믿어.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 갑작스러운 이별은 하고 싶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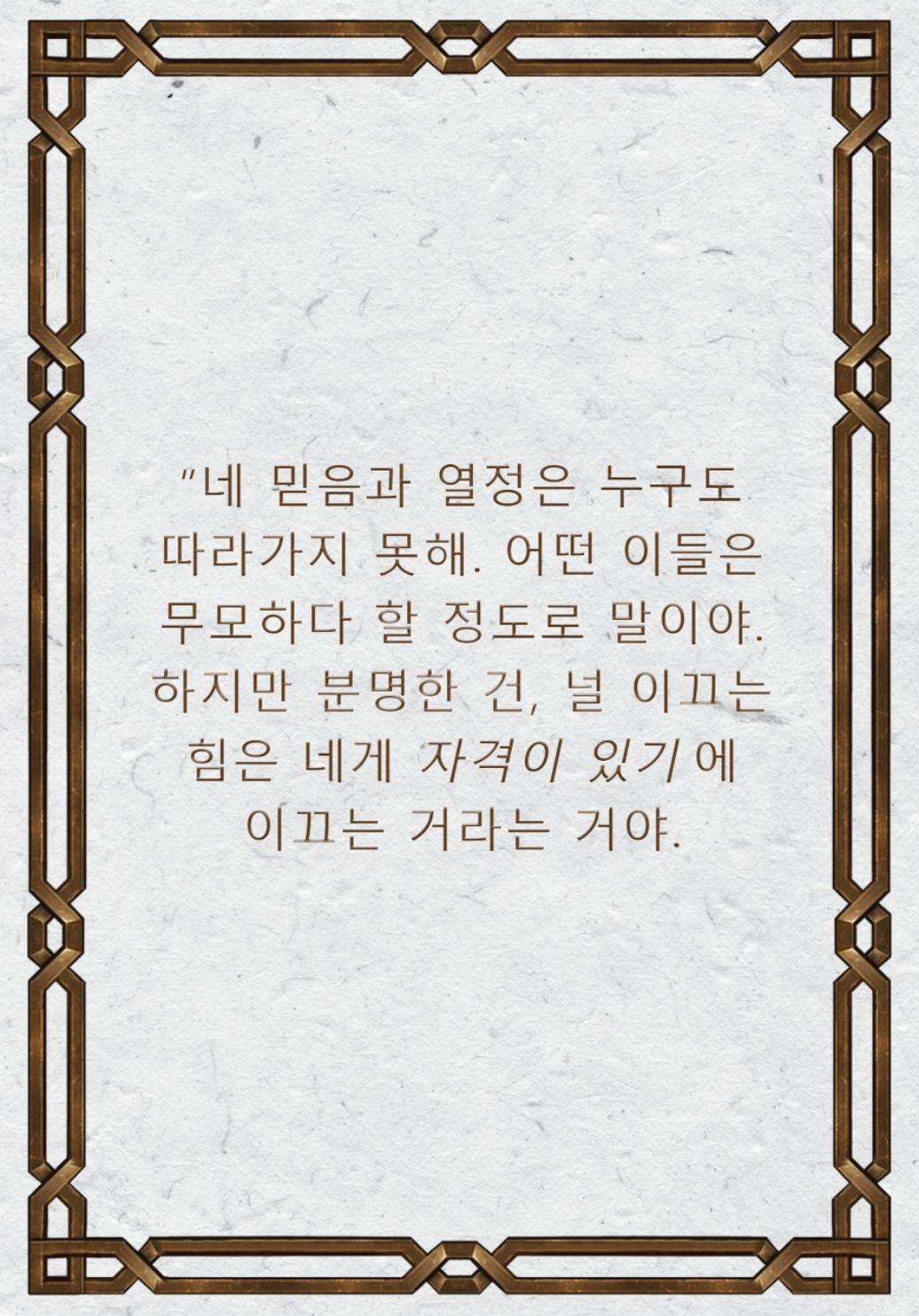
그 말과 함께, 메라디스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다. 페어린은 메라디스가 사라진 방향을 뻗히 쳐다봤다.

네게 자격이 있기에 이끄는 거야. 너는 처음으로 자격이 있었어. 우리가 처음 어둠에 휩싸였을 때부터.



페어린은 그날 밤을 기억한다. 신성한 불꽃이 처음으로 내면에서 타올랐던 밤을, 신성한 협곡에서의 삶이 영원히 뒤바뀐 그 순간을. 그 무렵의 보육원은 지금처럼 비어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반려자를 찾아 백년가약을 맺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투쟁은 계속됐다. 네루비안과 코비스는 정착을 시작한 아라시에게 쉴 틈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수많은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스러져갔다.

새로운 아이들이 보육원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사연은 늘 비극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어린은 보육원이 축복받은 곳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머무를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래서 페어린은 보육원을 따뜻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네 믿음과 열정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 할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널 이끄는
힘은 네게 자격이 있기에
이끄는 거라는 거야.”

그날 밤 페어린은 다른 용무로 바쁜 시그프레이드를 대신해 이야기를 읽어주기로 했다. 시그프레이드의 업무는 가면 갈수록 행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물자와 식량 관리, 아이들의 교육과 훈련까지. 지하 세계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 시절의 시그프레이드는 그렇게 자주 불평하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 페어린의 반항기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새로운 불꽃을 피웠고, 아이로 여겨지거나 아이 취급을 받는 것에 반발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작은 위안이 되었다. 작은 책임감, 어린 생명들을 지키는 의무감. 동시에 고된 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페어린은 알았다. **자신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행히 페어린은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

“이건 정말 좋은 이야기야.” 페어린이 책을 넘기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잊힌 여왕에 관한 책장이 나오길 바라며 죽히 천 번은 넘게 뒤적인 것 같았다. 애석하게도 헛수고였지만.

대신, 페어린은 용에게 마법을 배운 왕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멈춰 섰다. 주문이나 신화 속 생물이 나오는 이야기는 보통 인기가 좋았지만, 오늘 밤 페어린의 청중은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있었다. **바로 저녁이었다.** 배고픈 아이들을 달래는 법은 그 어떤 수업에서도 배우지 못한 일이었다.

페어린은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등을 곧게 세웠다. 책이 가슴에 기대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거나, 검을 휘두르는 흥내를 내거나, 마법의 괴물처럼 할퀴는 시늉을 하는 데 쓰기 위해서였다. 오늘 페어린은 반짝이는 비늘과 빛나는 날개를 가진 푸른빛의 용이었다. 이야기에 그런 묘사는 없었지만, 페어린은 만약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면 분명 빛날 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페어린은 기억 속 이야기를 읊으며 목소리에 가벼운 선율을 실었다. “왕자는 용을 보자마자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스승임을 알아챘어. ‘위대하고 강력한 용이시여! 왕자가 말했..... 물리! 물리,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아이고. 잠깐만!’”

페어린은 책을 의자에 내려놓고 봄에 갓 세 살이 된 갈색 피부의 작은 소녀에게 다가갔다. 페어린은 아이들의 이름과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했다. 분명히 의미가 있었으니까.

“물리야나, 이리 와. 나무토막보다 저녁이 훨씬 맛있을걸?” 페어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녀의 손에서 장난감을 뺏으려 했고, 물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꾀웃이 저항했다.

그 표정이 페어린의 가슴을 찢어냈다. “아휴, 알겠어.” 페어린은 웃으며 물러섰고,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만끽했다. 다행히도 물리는 전리품을 입에 넣지 않고 가지고 놀았다.

페어린은 다시 의자로 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지만, 건물 앞쪽으로 난 커다란 창문 밖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였다. 스틸스트라이크 장군의 병사들이 달려가고 있었다. 아마 훈련 중이겠지. 아니면 예비군이 여관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다 훈련에 늦은 것일 가능성도 있었다.

“누가 혼나겠네.” 페어린은 속삭이며 물리의 입에서 나무토막을 빼내려 손을 뻗었다. 곧이어 물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페어린은 급히 바지 주머니를 뒤져 한 꾸러미를 꺼냈다.

홀썩이던 물리는 갈색 눈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페어린의 손바닥에 놓인 꿀빵 덩어리를 바라보았다. 며칠 지난 것이긴 했지만 아직 먹을 만했다. 시그프레이드가 저녁 내내 침울한 표정을 지었던 이틀째 밤, 페어린은 자기 몫을 먹지 않고 따로 챙겨두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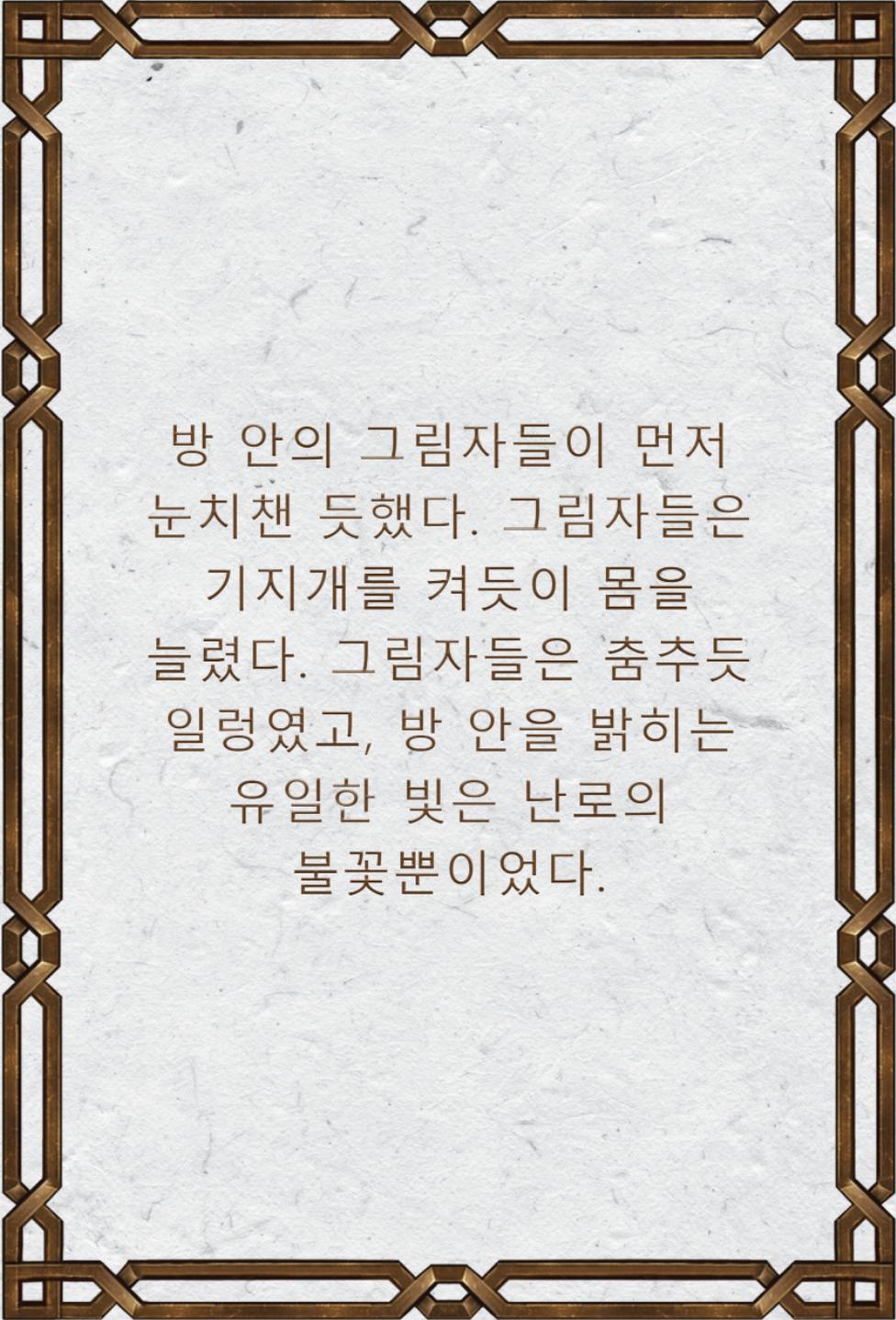
다른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모여들었다. 페어린은 천을 펼쳐 모두 함께 나누어 먹게 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페어린의 가슴에 따스함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의 입가에서 떨어지는 부스스리기 따위는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조만간 1층 전체를 쓸긴 해야겠지만. 당연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페어린은 조용히 웃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아이들은 늘 그랬듯이 웃으며 따라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밝아지던 찰나, 방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천천히 일어났다. 태양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 빛이 사라졌다. 수년이 흘렀지만 페어린은 태양을 기억하고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그 떠오르고 저물던 모습을. 밤이 내려앉던 순간을.

방 안의 그림자들이 먼저 눈치챈 듯했다. 그림자들은 기지개를 켜듯이 몸을 늘렸다. 그림자들은 춤추듯 일렁였고, 방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난로의 불꽃뿐이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재잘거림도 함께 잦아들었다. 모든 아이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잠들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먼저
눈치챈 듯했다. 그림자들은
기지개를 켜듯이 몸을
늘렸다. 그림자들은 춤추듯
일렁였고, 방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난로의
불꽃뿐이었다.

국자를 들고 난로 옆에 서 있던 시그프레이드가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떨리는 침묵 속에 천둥처럼 울렸다. “모두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시그프레이드가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페어린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하고는 커다란 광장 쪽 창문으로 다가가았다.

사람들이 길가에 멈춰 서 있었다. 손에는 바구니나 자루 같은 것을 든 채로. 제국 스라소니가 끄는 수레도 있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벨레다르** 쪽을.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 공포가 어려 있었다.

페어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유리창에 몸을 바짝 붙여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보려 애썼다.

“페어린 로서! 당장 그 창에서 떨어지거라!” 시그프레이드가 고함치며 방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곧이어 그는 아이들을 지하 저장고로 밀어 넣기 시작했다.

페어린은 깜짝 놀랐다. 평소 나무랄 때조차 연성을 높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반항심에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창문이 터지듯 산산이 조각났고, 유리와 나무, 금속이 쏟아져 들어왔다. 비명이 터져 나오며 한 성기사가 방에 처박혔다.

성기사는 반대편 벽에 부딪혔다. 축 늘어진 손에서 창과 방패를 흘리며 구겨지듯 쓰러졌다. 갑옷에는 깊게 팬 흠집이 검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바깥에서 인간 같지 않은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승리의 포효였다. 페어린의 온몸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네루비안이었다.

“페어린!” 시그프레이드가 아이들을 지하로 몰며 소리쳤다. 이제 지하 저장고에 숨어 있으면 될 일이었다. 공격이 끝날 때까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는 거다.

하지만 페어린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도 전에 방 안에 어둠이 드리웠다. 창이 있던 자리를 다리가 여러 개인 흉측한 괴물이 메우고 있었다. 괴물은 다리를 치켜세워 몸을 들었다. 부풀어 오른 몸은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고, 턱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부딪혔으며, 수많은 눈동자는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악의를 번뜩였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무기를 확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엄폐하라. 스틸스트라이크의 지침이 페어린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공격받을 때를 대비해 신성한 협곡 주민 모두에게 주입해 놓은 행동 강령이었다. 페어린은

옆에 쓰러진 탁자 뒤로 몸을 날려 숨었다. 입을 틀어막고 터질 듯한 숨소리를 삼켰다. 방 반대편에서는 시그프레이드가 지하 저장고 문아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방에는 페어린과 괴물, 축 늘어진 성기사뿐이었다.

네루비안이 다가오자 페어린은 몸을 더 웅크렸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고, 신경 끝마다 공포에 삼켜졌다.

“죽음이 다가온다.” 낮은 목소리가 딱딱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울렸다.

공포는 페어린의 뱃속을 짓누르며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달아날 수 있었다. 뒤쪽 계단으로 달려 위층 침실에 숨으면 된다. 옷장이나 찬장에 몸을 숨기고, 도움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다.

그때 희미한 흐느낌이 페어린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페어린은 눈을 홑떴다. 네루비안도 들은 듯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작은 물리가 넘어진 의자 밑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얼굴로 킁킁했다. 페어린은 그 울음을 *알아보았다*.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온, 가슴 아픈 소리였다. 불쌍한 소녀는 조용히 있어야 할 때조차 모르고 스스로 위험을 부르고 있었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고동쳤고 생각은 쉴 새 없이 뒤영겼다. 페어린밖에 없었다. 괴물들이 이렇게 메델다르 깊숙이 침입했다면 병사들은 싸우느라 묶여 있을 터였다.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더군다나 벨레다르의 빛도 어둠 속에 도사리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줄 만큼 밝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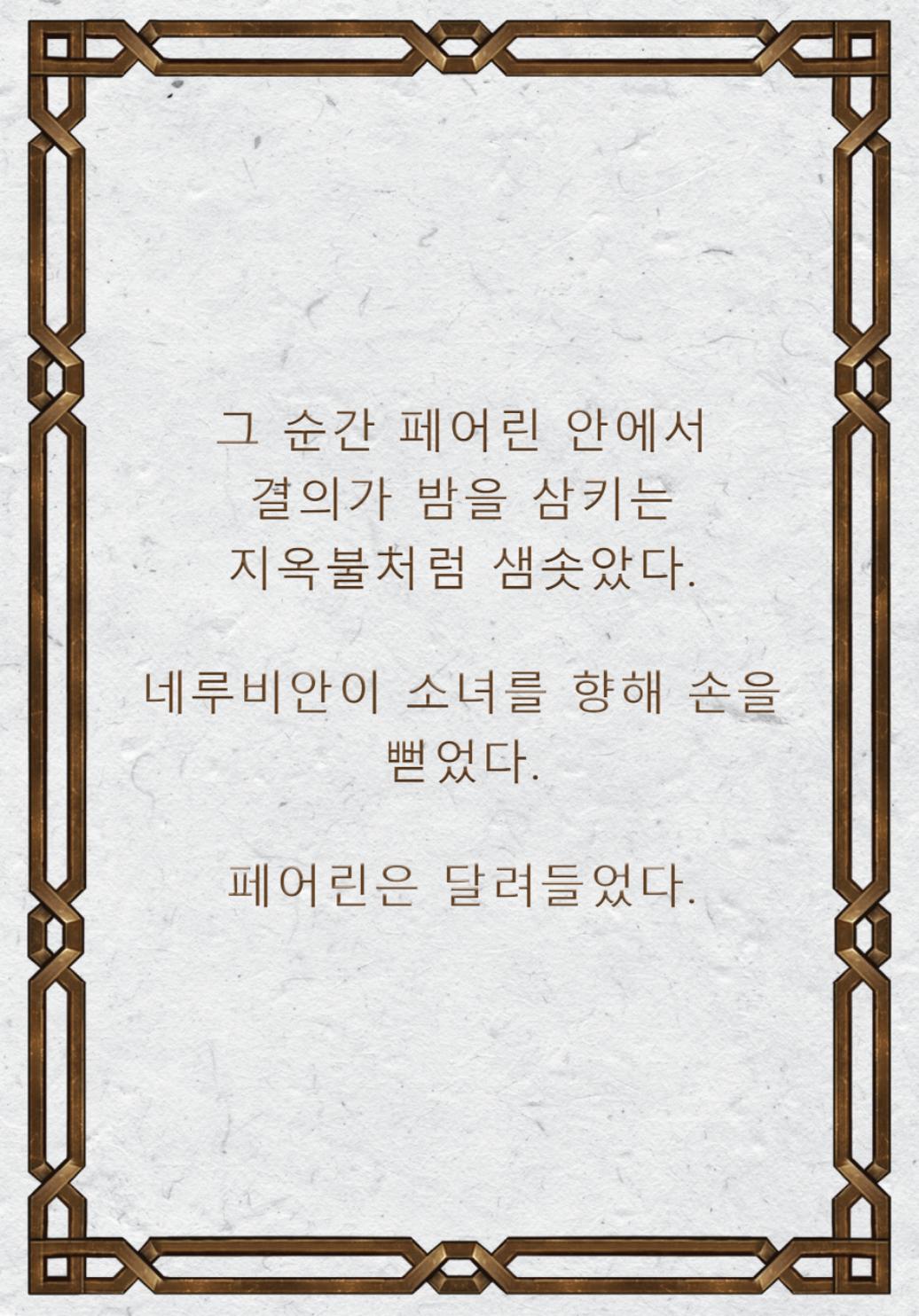
아무도 없다.

‘내가 있잖아.’ 페어린 내면의 무언가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페어린은 물리와 다른 아이들에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야기 속 영웅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신성한 불꽃은 언제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크레이세이가 전쟁의 한가운데, 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 힘을 발현한 것처럼.

계승자가 있는 한.....

.....햇불은 밤을 밝히며 타오르리라.

페어린은 눈을 짙건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가슴속 열기가 솟구치며 몸을 얼어붙게 한 두려움을 태워버렸다. 페어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네루비안은 막 물리 위로 몸을 드리웠고, 아이는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물리의 어두운



그 순간 페어린 안에서
결의가 밤을 삼키는
지옥불처럼 샘솟았다.

네루비안이 소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페어린은 달려들었다.

눈동자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페어린 안에서 결의가 밤을 삼키는 지옥불처럼 샘솟았다.

네루비안이 소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페어린은 달려들었다.

목구멍에서 포효가 터져 나왔다. 시야가 번쩍 빛났다. 페어린은 뺨어나가는 네루비안의 발톱과 물리 사이로 몸을 내던졌다. 괴물의 괴성이 울렸다. 페어린은 고통을 받아낼 준비를 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페어린이 깜빡거리며 눈을 뜨자, 충격적인 광경에 말문이 틀어막혔다. 찬란하게 일렁이는 반구가 페어린과 물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빛의 근원은 바로 페어린이 치켜든, 금빛 광채를 발산하는 손바닥이었다. 네루비안은 보호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성스러운 빛이 공격을 막아냈다.

괴물은 눈앞의 먹이를 빼앗긴 분노에 비명을 질렀고, 곧이어 몸통을 꿰뚫고 나온 창끝에 의해 비명이 푹 끊겼다. 진득한 체액이 바닥에 튀었고, 반구에 닿자 타들어 가는 소리를 냈다. 괴물은 축수를 날리며 창을 붙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발버둥이 자해가 되어 사지를 찢어발겼다. 괴물은 딱딱거리며 단말마를 토했고, 축축한 쿵 소리와 함께 허물어졌다.

창을 쥐고 네루비안의 시체를 딛고 선 자는 바로 아까 창문을 뚫고 날아들어 온 성기사였다. 그는 면갑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페어린을 뺨히 바라보았다. 성기사의 눈빛에 담긴 감정은 혼란이었다. 눈앞의 광경을 서서히 이해한 뒤에는 놀라움이 번졌고, 그 놀라움은 앞으로 페어린이 수없이 보게 될 표정 중에서도 첫 번째였다.

“네 힘으로…… 펼친 거구나.” 성기사의 목소리는 고통에 가라앉아 있었다.

페어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러자 반구와 손끝의 빛이 사그라졌다.

물리는 페어린의 다리에 매달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대단하군.” 성기사가 말했다. 이내 멀리서 들려오는 고향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무기를 들어 올리려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신에 들어간 힘을 풀었다.

“진격하라!” 익숙한 목소리가 외쳤다. 수업 시간에 종종 페어린에게 나지막하게 실망감을 드러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스틸스트라이크 장군이였다. 병사들이 날카로운 칼날과 화살의 물결을

내세워 들이닥쳤다. 거리의 네루비안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거나 처치당했다.

“신성한 불꽃이시여, 감사합니다.” 성기사는 투구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페어린은 그를 알아보았다. 라이턴 블랙홀름이었다. 라이턴은 원정대 중 젊은 축에 들었지만, 싸움에 능할 뿐 아니라 무기를 버리고 다루는 솜씨도 뛰어난 자였다. 페어린은 장군 휘하의 병사를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라이턴이 물리와 페어린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다친 데는 없니?”

페어린은 간신히 고개를 저었다. 물리는 여전히 페어린의 다리에 딱 붙어 있었다.

“다행이야.” 병사들의 외침이 가까워지자 라이턴은 한층 더 힘을 뺐다.

라이턴이 안도하는 모습에 페어린의 심장을 옥죄던 공포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해냈다. 어둠 속 괴물 앞에서 버텼다.

“페어린, 맞지?” 라이턴이 약간 쉼 목소리로 물었다.

페어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라이턴이 페어린을 아는 건 당연했다. 정착지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아이였던 페어린은 스틸스트라이크 장군에게 끊임없는 두통을 유발하는 걸로 유명했으니.

“용기 있구나.” 그가 말했다. “가진 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시그프레이드도, 장군도 페어린의 용맹을 그리 반기진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페어린은 아직 전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강령대로 행동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페어린의 용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들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신성한 불꽃을 다루는 재능이 개화한 탓에, 장군은 마지못해 정식 전사 훈련을 시작하는 걸 허락했다.

페어린은 그 뒤 몇 달 동안 보육원이 수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산산조각난 창문은 나무로 단단히 보수되어 벽이 되었고, 페어린은 점점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제 페어린은 새로운 길에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길이였다.

페어린의 생각은 기억에서 기억으로 튀었다. 병사로서 처음 훈련을 받던 날, 마지막으로 라이턴과 함께 싸운 날, 어둠 속으로 빛을 가지고 가겠노라 점점원의 맹세를 한 순간까지.

이번에는 그 빛을 더 멀리 가져가겠다는 뜻을 전할 차례였다.

“페어린, 기다리고 있었나?” 별안간 목소리가 들렸다.

페어린은 오늘 두 번째로 놀라며 돌아섰다. 위대한 카이론이 살짝 떨어져 서 있었다. 그 얼굴에는 호기심 어린 웃음과 함께 약간의 근심이 어려 있었다.

페어린은 벌떡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위대한 카이론 님. 그제...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지.” 카이론은 회의실 안쪽으로 손짓했다. 방 안은 장식이라고는 벽에 고정된 지도 몇 장이 전부일 뿐, 간소하기 그지없었다. 지도에는 점등원과 일반 병력, 적의 동향이 그려져 있었고,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보였다.

페어린은 이 집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많았다. 이번이 지휘관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다.

“무슨 일 있나?” 위대한 카이론이 책상 너머로 돌아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장은요.**” 페어린은 운을 띄우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고 연신 헛기침을 해댔다. 페어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페어린은 두려움에 익숙했다. 수없이 마주했고, 셀 수 없이 이겨냈지만 두려움은 늘 다시 찾아왔다.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불멸의 적수였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페어린을 움직이게 한 순간이 많았듯, 앞길을 인도해 준 것은 언제나 믿음이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 일 없습니다.” 페어린이 다시금 힘주어 말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두인과 알레리아 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곧 지상으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카이론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페어린의 예상과 달랐다. 실망이나 불신, 심지어는 분노까지 각오했었다. 물론 위대한 카이론이 그런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잔잔한 기색이 펼쳐졌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지.”

페어린은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꽤 오래전부터 말이야.” 카이론이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보냈다. 페어린은 냉큼 따랐다. “지난 몇 주 동안 자네가 신성한 협곡뿐만 아니라 카즈 알가르 전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네. 이런 요청도 놀랄 일이 아니지.”

페어린은 가슴을 죄는 익숙한 감각이 더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점등원으로서 아라시를, 카이론님을 섬긴 건 제 삶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적이 길어지자 위대한 카이론이 말해보라고 달랬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마침내 페어린이 말을 끝맺었다.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 바깥에서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페어린은 고개를 들었다. 위대한 카이론의 시선은 단단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페어린은 이번에는야말로 침묵에 잠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실망이 찾아오겠구나.*’ 페어린은 생각했다.

그러나 카이론은 그저 페어린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페어린, 자네는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야. 이 사실은 자네가 어디에 있든 변치 않을 걸세. 나는 지금껏 많은 점등원을 길러냈네. 또, 아침은 칼날을 무디게 할 뿐이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자네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만은 확신하네. 세상을 가로질러 깊은 지하로 이끌었던 그 부름이 다시 자네를 부른다는데, 귀를 닫아버리는 건 어리석은 처사가 되겠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나도 모르지만, *나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네..... 자네가 그리울 거라는 거야.”

카이론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페어린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솟구쳤다. 페어린은 곧바로 눈물을 참으려 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무례하게 비칠 수도 있었기에. 그러나 위대한 카이론의 눈빛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국 최고 명문가 중 하나가 이런 시기에 다시 날개를 펼치려 한다니, 운명 같은 일이야. 신성한 협곡은 그만큼 어두워지겠지만.” 카이론은 쓸쓸하게 탄식했다.

페어린은 눈을 깜박이며, 마침내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신성한 불꽃은 영원히 타오를 겁니다.”

페어린은 채비를 위해 물러났다. 그리고 그중에는 가장 하기 싫은 일도 남아 있었다. 바로 작별 인사였다.

동료 점등원 대다수가 메라디스가 말한 여관에 모여 있어 쉽게 찾을 수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
제 삶을,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왔죠. 또 한동안은
여기 머물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 카이론이 대신 말을
끝맺었다.

있었다. 페어린은 여관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고민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말이다.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 말할지, 아니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할지. 고민 끝에 페어린은 단번에 끝내기로 했다.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발표를 끝내자 침묵이 흘렀고, 다들 멍하니 페어린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요란한 환호성이 터졌다. 모두가 페어린을 축하해 주었고, 앞날을 응원했다. 몇몇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질투를 늘어놓기도 했고, 결국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다. 그럴 만도 했다. 동료가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카즈 알가르 전역에서 모인 동맹이 거둔 대승을 축하할 때였다. 지금이야말로 잠시 여유를 부려도 괜찮은 시기였다.

그 와중에 메라디스는 페어린을 따로 불러 잔을 입에 댄 채 속삭였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래.” 페어린은 한숨 섞인 웃음으로 답했다. “네가 맞았어.”

메라디스는 페어린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다. “언제는 안 그랬나. 네가 가버리는 건 싫지만, 잘 돼서 정말 기뻐. 너를 알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뿌듯하고.”

페어린의 가슴에 따뜻함이 번졌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퍼졌다.

이내 메라디스가 팔을 활짝 펼쳐 페어린을 꼭 끌어안았다. “솔직하게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전부 다 고마워.”

페어린도 가능한 한 세계 메라디스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제 놓아줘야 할 때였다.

그날 밤은 또 다른 이별의 날로 이어졌다. 가진 게 많지 않아 짐을 싸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페어린은 다음에 찾아갈 사람으로 스틸스트라이크 장군을 택했다. 장군은 이번 결정마저도 줄곧 이어진 불미스러운 행동 가운데 하나라며 즉시 꼬집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강령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내가 손쓸 수 없는 위험에 휘말릴 거란 걸 명심해라.” 그 말투에는 장군이 평소 페어린에게 보이던 분노나 짜증 어린 어조가 담겨 있지 않았다. “뭐, 요즘에는 내가 구해줄 필요도 별로 없었지만 말이야.” 장군은 결국 어깨를 떨구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페어린은 전사라는 겹질에 가려진 여인을 엿볼 수 있었다. 한 공동체의 안위를 짊어진 자에게 따르는 깊은 피로였다.

“전 처음부터 장군님이 필요했는걸요.” 페어린은 큰 탁자 너머에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분명 장군님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장군님이 내려주신 모든

가르침을 갖고 갈 거고요. 그 가르침과 지도는 제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두 여인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뜻밖에도 먼저 무너진 쪽은 스틸스트라이크였다. 스틸스트라이크는 성큼성큼 페어린에게 다가와 숨이 막힐 만큼 꼭 껴안았다. 페어린도 힘껏 끌어안고는, 자신을 길러준 이의 외투를 꼭 움켜쥐었다.

“아라시의 힘이 네 안에서 빛나고 있다.” 스틸스트라이크가 속삭였다. 그리고 몸을 떼며 눈가를 재빨리 훔쳤다. 이윽고 장군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 빛을 보여주거라.”



페어린은 다음 작별 인사를 위해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 입구에는 거대한 스라소니가 뒹굴며, 고아들이 잃어버린 건지 일부러 던져준 건지 모를 찌그러진 공을 우두둑 씹고 있었다.

페어린은 짐승 곁을 지나쳤다. 녀석은 귀만 살짝 까딱였을 뿐, 공을 씹는 데 여념이 없었다. 페어린은 마구간 깊숙한 우리 쪽으로 걸어가며 노래하듯 불렀다. “불길발톱~”

늘어져 있던 라이트의 스라소니가 머리를 들었다. 불길발톱은 페어린의 방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페어린이 몸을 낮춰 녀석의 온몸을 긁고 쓰다듬어 주자 등줄기에서부터 고르르 울리는 소리를 냈다.

“누가 착한 아이라고? 너지, 그렇지? 그래, 너 말이야.” 걸으로는 스라소니를 꺼리는 척했지만, 페어린은 이 거대한 짐승들에게 은근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직관적이었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좋겠어.” 페어린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한 며칠은 못 올 수도 있어. 아니, 몇 주가 될지도. 부디..... 버림받았거나, 내가 잡혀갔을 거란 그런 생각은 하지 마.” 페어린은 털 뭉치를 꼭 움켜쥐었다. 스라소니는 낮게 불평했고, 페어린은 힘을 풀었다. 대신 팔로 불길발톱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꼭 문었다.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누군가 네게 신선한 생선과 봄풀을 가져다주기를 빌게.”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한 번의 작별 인사가 남았고, 그때를 위해 눈물을 아껴야 했다. 페어린은 우리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에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좋겠어.” 페어린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한 며칠은 못
올 수도 있어. 아니, 몇
주가 될지도. 부디
버림받았다거나, 내가
잡혀갔을 거란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머리를 얹은 스라스노의 귀를 정성껏 긁어주었다.

한 시간쯤 그렇게 쓰다듬고 간식도 세 번이나 챙겨준 후, 페어린은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고 천천히 수도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이에게만 반응했다. 몸 전체가 짓눌린 듯 무거웠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같았고, 속에는 돌덩이가 들어찬 것 같았다.

페어린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탄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길을 걸었다. 승천자 네루비안이 어둠 속에서 공격해 왔다. 전령은 아라시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를 빼앗아 차지했고, 페어린은 알레리아와 안두인, 구세계에서 온 수많은 용사와 함께 마지막 남은 공허의 잔재를 몰아냈다. 알레리아와 동료들은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는 축복을 받았다. 안두인 역시 페어린이 줄곧 전하고자 했던 의미를 받아들였다. 신성한 불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익숙한 길을 걷는 지금, 페어린은 쓸물이 올라오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고들 한다. 상실과 슬픔의 고통은 칼에 베이는 고통처럼 날카롭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라시, 나아가 점등원이라면 그런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다. 인정하되, 용기와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간다.

알레리아의 친구 카드가는 돌아왔다. 그러나 페어린은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내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왜 라이트도, 안다리도, 물리의 부모님도, 수많은 이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는가? 페어린과 점등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페어린은 사념을 억누르며 목적지에 닿았다. 첫새벽의 지대로 이어지는 다리 근처의 바위 언덕이었다. 페어린은 그 자리에 섰다. 뒤로 물레방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머리 위로 떠다니는 비행선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페어린이 안다리와 즐겨 찾던 추억의 장소였다. 잠깐의 휴식을 위해, 또 빛의 승부수를 두기 위해, 병사도 점등원도 아닌 그저 친구로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곳.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안다리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페어린은 손아귀에 쥔 빛의 승부수 말 두 개를 움켜쥐었다. 최근에 새로 깎고 칠한 것들이었다. 그동안 간신히 억눌러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널 살려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내놓을 수 있는데.” 페어린이 바람 속에 흐느끼며 말했다. 고개를 떨구고, 두 팔로 배를 감쌌다. 주먹에 꽉 쥔 나무 말이 손바닥을 찔렀다. “네가 살아 있었다면 내 짐을 싸주고는 가라고 등을 떠밀었겠지. 아니면..... 함께 갔을지도 모르고. 내가 가자고 했을지도 몰라.” 작은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페어린은 무릎을 꿇고 풀밭에 말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흙을 스쳤다. 함께한 모든 것을, 함께한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 희생을. 그 용기를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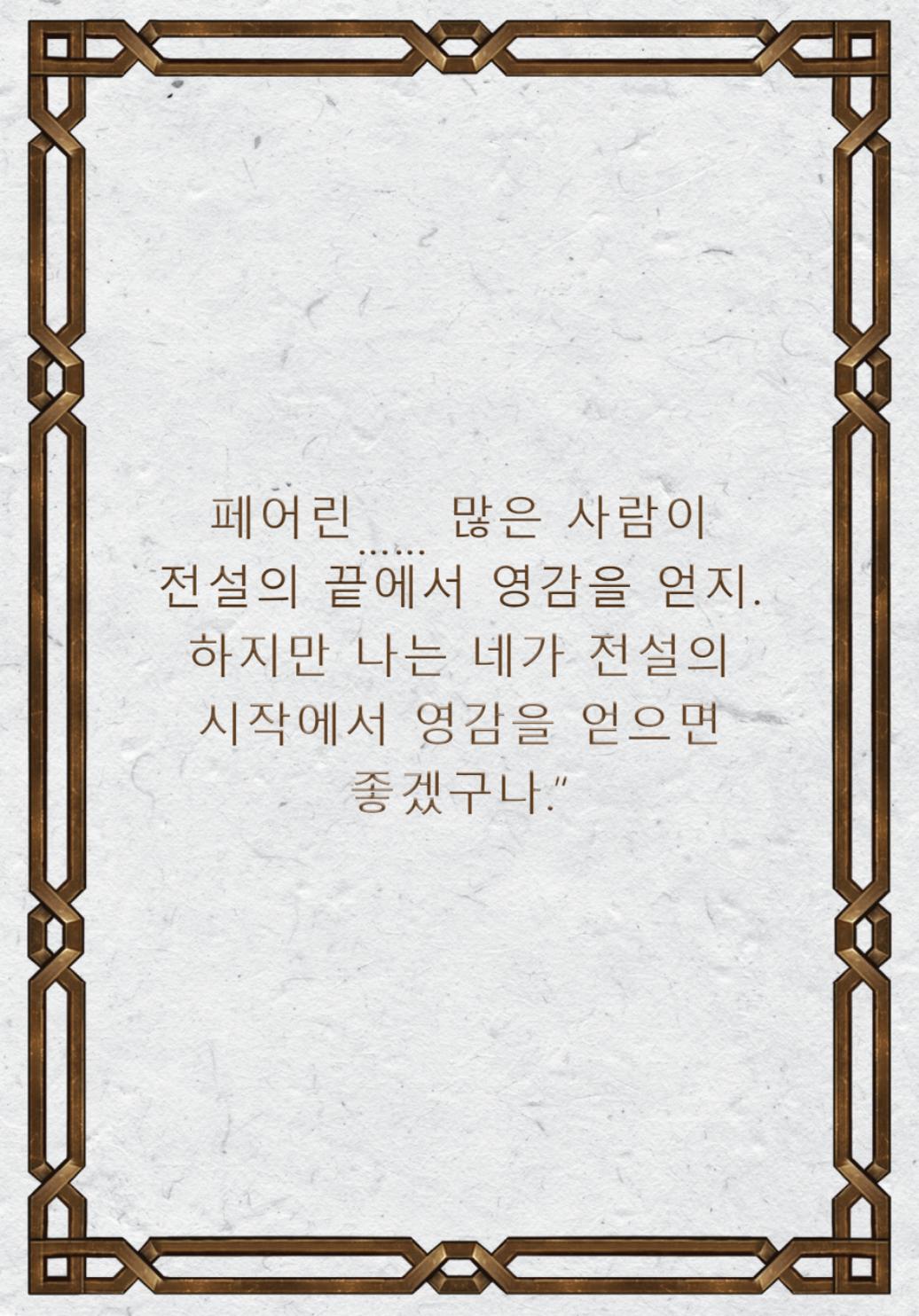
“너를 언제나 가슴에 품을게.” 페어린은 속삭였다. “네 기억은 내 길을 밝히는 빛이야. 사람들을 보살펴줘. 나 대신 지켜줘. 불꽃이 네 영혼을 감싸길.” 눈앞이 흐릿해진 채, 페어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우면서도 가볍게 느껴졌다. 이제 끝이었다. 이 길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알았고, 그 과정이 뜻밖에도 순조로웠지만, 떠나는 고통만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페어린은 라이트이 그리웠다. 라이트이라면 페어린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페어린은 안다리라 그리웠다. 안다리라면 함께 빛의 승부수 한 판을 두며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일이고, 홀로 걷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다.....

페어린은 종종 생각하곤 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여왕 크레이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남겨진 이들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하고.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앴을 그때, 여왕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당연히 그랬을 거다.” 어느 날 밤 시그프레이드가 페어린의 질문에 답해주었다. 페어린은 크레이세이의 전설과 자신의 삶을 곱씹으며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다. 시그프레이드는 약간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희생은 영원이 아니란다. 받아들이는 거지. 크레이세이는 여전히 삶을 갈망했고, 쓰러져간 자들을 위해 삶을 온전히 누렸어. 페어린..... 많은 사람이 전설의 끝에서 영감을 얻지. 하지만 나는 네가 전설의 시작에서 영감을 얻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크레이세이가 희망과 결의로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듯이, 페어린도 자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느꼈다. 바로 그 불꽃을 품고 페어린은 한 걸음씩 내디뎠다. 안다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장소에서, 라이트과의 기억에서, 점등원과의 추억에서, 마구간과 불길발톱에게서, 스틸스트라이크 장군과, 보육원, 그리고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아이들과 시그프레이드로부터 멀어져갔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디 아이들이 페어린을 떠올릴 때, 늘 읽어주던 이야기처럼 멋진 모험을 떠났다고 생각해 주기를. 누가 알겠는가. 언젠가 페어린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돌아올 수 있을지.



페어린 많은 사람이
.....
전설의 끝에서 영감을 얻지.
하지만 나는 네가 전설의
시작에서 영감을 얻으면
 "좋겠구나."



여정은 도르노갈로 향했다. 다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지금의 하늘이 더 맑게 느껴지는 건 더는 지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 익숙한 땅과 그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선다는 것이 공기를 더욱 상쾌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

어찌 됐든 페어린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구세계로 향하는 차원문을 통해 떠날 우리가 모인 곳으로 나아갔다. 흥분이 전신을 울렸다. 성스러운 빛과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타오르는 열기였다. 물론 그 빛도 열정적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일행 틈바구니에서 안두인을 발견한 페어린은 가까이 다가갔다. 안두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절로 미소가 번졌다. 안두인은..... 한결 밝아 보였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무게를 덜어낸 것 같았다.

“페어린!” 안두인이 불렀다. “슬슬 걱정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맹세를, 친구를, 지금껏 알던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모험을 좇아 떠나는 걸 포기할까 봐요?” 페어린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다. 가볍게 따져 묻는 듯한 어조였다.

웃음기가 빠지는 안두인의 얼굴을 보니 즐거움이 배로 느껴졌다. 페어린은 웃으며 안두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진정해요. 저 갈 거예요. 아기는 모든 이의 축복과 사람들에게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품고 말이지요.”

안두인의 얼굴을 덮는 안도감은 페어린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물론 전 다 이해했을 겁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야 세상에서의 긴 모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어땠나요?” 페어린이 말끝에 살짝 의구심을 담아 물었다. “그 모험 말이에요. 원하던 걸 찾았나요?”

안두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시선을 내렸다다 다시 올렸다. 안두인의 미소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찾았습니다.”

“페어린.” 제이나 프라우드무어가 다가와 안두인 옆에 섰다. 제이나는 안두인을 힐끗 보더니 페어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반가워요. 당신이 제때 도착 못 할까 봐 안두인이 걱정하더군요.”

“그래요?” 페어린이 놀리듯이 물었다. 국왕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안두인은 헛기침을 했다. “그, 그냥..... 당신 혼자 차원문을 통과해야 할까 걱정했던 겁니다. 마법으로 이동해본 적이 없다면 첫 경험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혼자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제이나는 말없이 미묘한 표정으로 안두인을 응시했다. “어쨌든 페어린이 와서 다행이네요. 안두인에게 역지사지의 감정을 느끼게 해줬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두인이 잠깐 당황한 기색을 털고 물었다.

“고집 센 귀족 하나 챙기느라 고생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조연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성격 말이죠.”

안두인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제렉.”

국왕의 목덜미가 붉게 물드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제이나는 자비를 베풀어 화제를 바꿔주었다. “페어린, 다나스를 설득하는 데 꽤 애먹었다는 것만 알아줘요. 다나스가..... 고향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동행할 거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페어린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긴 했다. 구세계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준 당사자인 안두인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하지만 안두인에게 책무가 있음을 이해했다. 본인의 귀환도 그렇고, 묘해진 전령의 행방도 문제였으니.

페어린은 제이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안두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제렉?”

안두인은 주먹에 입을 대고 헛기침을 했다. 얼굴엔 희미한 흥조가 번지고 있었다. 안두인은 페어린을 보지 않으려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다. “그 애긴 다음에 하죠. 곧 출발할 겁니다. 다나스는 어디 있나요?”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다나스 트롤베인이 무리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늙은 왕이자 노련한 병사. 전투의 상흔이 가득한 다나스는 안두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안두인은 서둘러 그 예를 받았고, 이어 페어린을 향해 돌아섰다.

“자네가 점등원 로서로군.” 다나스가 손을 내밀었고, 페어린은 손을 맞잡았다. “영광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페어린은 다시 한 번 안두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제법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구세계가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네.” 다나스가 말했다.

“사실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페어린이 솔직히 털어놓았다. 페어린에게 구세계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새로운 경이와 위험이 가득할 터였다. 하지만 크레이셰이 여왕의 이야기는 여전히 페어린의 가슴속에 메아리쳤고, 자신을 끄는 올림은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페어린 또한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선조가 그랬듯이. 낯선 길은 신성한 불꽃이 인도할 것이다. 페어린은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다. “그러니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요.”

작가 소개

리트리스 "엘" 매킨니(필명 L.L. McKinney)는 *The Root* 및 BET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100인'에 이름을 올린 작가로, 출판계의 평등과 포용을 지지하는 활동가이자 해시태그 #PublishingPaidMe 및 #WhatWoCWritersHear의 창시자이다.

엘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SF, 판타지를 사랑하며,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다채로운 세상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캔자스시티에 거주하는 열렬한 HeiHei 팬인 엘은 여유가 될 때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고양이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린다. 엘이 기르는 고양이로는 체스터 플러프마이어 뿔스누트 퍼링턴 위글바텀 플루퍼슨 3세이자 버터스카치 남작, 험프리 블레퍼니커스 줌머슨 웨일링셔 토보이언스 치르핑스톤 4세이자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부수는 자'가 있다. 줄여서 그냥 체스터랑 험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엘의 대표작으로는 나이트메어버스 시리즈, 수상작 DC 그래픽 노블 *누비아* 시리즈, 마블 블랙 위도우: *배드 블러드* 등 다수가 있다.